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18년 3월 27일(화) (총 5쪽)	담당부서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담당자	최난주 팀 장 (043-880-5421) 김기현 조사관 (043-880-5426)

2017년 소비자 위해동향 분석

- 10세 미만 ‘침대 추락’, 50·60대 이상 ‘바닥재 미끄러짐’ 사고 빈발 -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필요 -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제품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중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소비자 위해정보는 총 71,0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연도별 접수건수(증감률): '15년 68,002건 → '16년 69,018건(1.5%) → '17년 71,000건(2.9%)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위해 다발 품목은 ‘가구/가구설비’, 전년대비 증가 품목은 ‘가공식품’

2017년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가구 및 가구설비’로 전체의 15.1%인 10,707건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1,487건, 16.9%)한 ‘가공식품’이 14.5%(10,314건)를 차지했다.

한편, 2016년 ‘가정용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에서 각각 중금속과 OIT(옥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로 위해정보 접수가 급증했던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 가장 많이 감소(△1,461건, △18.1%)했다.

연도별 위해 다발 상위 5개 품목

2016년	2017년	증 감
1 가구 및 가구설비 (10,482건/15.2%)	1 가구 및 가구설비 (10,707건/15.1%)	225건(2.2%)
2 건축/인테리어자재 및 작업공구 (8,832건/12.8%)	2 가공식품 (10,314건/14.5%)	1,487건(16.9%)
3 가공식품 (8,827건/12.8%)	3 건축/인테리어자재 및 작업공구 (9,326건/13.1%)	494건(5.6%)
4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8,058건/11.7%)	4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6,597건/9.3%)	△1,461건(△18.1%)
5 건물,시설 및 서비스 (5,743건/8.3%)	5 건물,시설 및 서비스 (6,227건/8.8%)	484건(8.4%)

위해 다발 장소는 ‘주택’이 절반 가까운 47.7%(33,806건)로 가장 많았고, ‘도로 및 인도’ 9.2%(6,549건), ‘숙박 및 음식점’ 7.2%(5,094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은 ‘피부 손상’이 전체의 37.2%(26,42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12.5%(8,901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9.4%(6,670건) 등이었다.

□ **연령대별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유의할 필요**

연령 확인이 가능한 65,503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 다발 연령대는 ‘만 10세 미만’이 전체의 35.5%(23,279건)로 해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30대’ 14.8%(9,699건), ‘40대’ 12.4%(8,096건), ‘60대 이상’ 11.0%(7,2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해 다발 품목 및 유형을 살펴보면, ‘만 10세 미만’은 침대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10대’는 자전거 사고, ‘20대’는 반려견 물림 사고, ‘30·40대’는 가정용 정수기 이물질 검출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50·60대 이상’ 중년 및 고령층에서는 석재·타일 바닥재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발했다.

연령대별 위해 다발 품목

연령대	만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다발품목	침대 (2,194건)	자전거 (406건)	반려견 (254건)	가정용 정수기 (371건)	가정용 정수기 (344건)	석재·타일 바닥재 (290건)	석재·타일 바닥재 (928건)
유형	추락	미끄러짐· 넘어짐	동물에 의한 상해	이물질	이물질	미끄러짐· 넘어짐	미끄러짐· 넘어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위해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특히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과 시설에서는 낙상 방지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핫라인(☎ 080-900-3500)이나 ‘위해정보신고’ 모바일앱 또는 한국소비자원 CISS 홈페이지(www.cis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CISS 홈페이지 내 ‘위해정보동향’ - ‘소비자위해동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p>	<p>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	---	--

< 붙임 >

1 2017년 소비자 위해동향 주요 내용

□ 연도별 현황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는 피해정보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총 71,000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2.9%(1,982건) 증가함.

[연도별 피해정보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65,405	67,037	68,002	69,018	71,000
전년대비 증감건수(증감률)	-	1,632 (2.5)	965 (1.4)	1,016 (1.5)	1,982 (2.9)

□ 품목별 현황

- 2017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가구 및 가구설비’로 10,707건 (15.1%)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가공식품’ 10,314건(14.5%),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9,326건(13.1%) 등의 순임.
- 전년대비 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가공식품’으로 1,487건 (16.9%)이 늘어남.
- 2016년 ‘가정용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에서 각각 중금속과 OIT(옥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로 피해정보 접수가 급증했던 ‘가전 제품 및 정보통신기기’는 2017년 가장 많이 감소(1,461건, 18.1%)했음.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

품목(대분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감건수	증감률
가구 및 가구설비	10,482	15.2	10,707	15.1	225	2.2
가공식품	8,827	12.8	10,314	14.5	1,487	16.9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8,832	12.8	9,326	13.1	494	5.6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8,058	11.7	6,597	9.3	△1,461	△18.1
건물, 시설 및 서비스	5,743	8.3	6,227	8.8	484	8.4
자동차 및 관련 용품	4,383	6.4	5,428	7.7	1,045	23.8
스포츠 및 취미용품	4,342	6.3	4,827	6.8	485	11.2
완구 및 게임용품	1,690	2.4	2,431	3.4	741	43.9
주방기기 및 용품	2,938	4.3	2,188	3.1	△750	△25.5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	2,179	3.2	2,160	3.0	△19	△0.9
화장품 및 화장용품	2,176	3.1	1,830	2.6	△346	△15.9
애완 동식물 및 용품	1,334	1.9	1,781	2.5	447	33.5
의류, 신발, 가방, 보석 및 시계	2,389	3.5	1,485	2.1	△904	△37.8
생활용품	1,495	2.2	1,478	2.1	△17	△1.1
축산·수산물 식품	819	1.2	1,085	1.5	266	32.5
도서, 음반 및 문구용품	647	0.9	888	1.3	241	37.3
식품 식품	622	0.9	871	1.2	249	40.0
농·임·어업용 기계 및 관련용품	1,007	1.4	532	0.8	△475	△47.2
기타*	1,055	1.5	845	1.1	△210	△19.9
총계	69,018	100.0	71,000	100.0	1,982	2.9

* ‘조명기구 및 전기부품&용품’, ‘연료 및 전지’, ‘화재, 안전 및 보안장비’, ‘기타 장비 및 제품’ 등

□ 발생장소별 현황

- 위해 발생 장소는 ‘주택’이 전체의 47.7%인 33,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 및 인도’ 6,549건(9.2%), ‘숙박 및 음식점’ 5,094건(7.2%),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2,110건(3.0%) 등으로 나타남.
- ‘도로 및 인도’, ‘숙박 및 음식점’, ‘쇼핑시설’은 전년대비 증가건수가 각 1,227건, 1,053건, 689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주택’, ‘의료서비스시설’, ‘농·수·축 산업지역’은 전년대비 각 422건, 262건, 223건 감소함.

[발생장소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감건수	증감률
주택	34,228	49.6	33,806	47.7	△422	△1.2
도로 및 인도	5,322	7.7	6,549	9.2	1,227	23.1
숙박 및 음식점	4,041	5.9	5,094	7.2	1,053	26.1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848	2.7	2,110	3.0	262	14.2
기타 상업시설	1,860	2.7	1,806	2.5	△54	△2.9
교육시설	1,438	2.1	1,754	2.5	316	22.0
쇼핑시설	803	1.1	1,492	2.1	689	85.8
스포츠/레저시설	1,009	1.5	1,186	1.7	177	17.5
의료서비스시설	999	1.4	737	1.0	△262	△26.2
교통시설	477	0.7	494	0.7	17	3.6
자연 및 관련시설	329	0.5	227	0.3	△102	△31.0
농·수·축 산업지역	395	0.6	172	0.2	△223	△56.5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163	0.2	170	0.2	7	4.3
종교 및 문화시설	93	0.1	111	0.2	18	19.4
공공시설	42	0.1	15	0.0	△27	△64.3
산업 및 건설지역	21	0.0	9	0.0	△12	△57.1
기타*	15,950	23.1	15,268	21.5	△682	△4.2
총계	69,018	100.0	71,000	100.0	1,982	2.9

*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장소 및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위해증상별 현황

- 위해증상은 ‘피부 손상’이 26,426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8,901건(12.5%),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6,670건(9.4%), ‘신체내부 장기 손상’ 5,848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위해증상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감건수	증감률
피부 손상	26,558	38.5	26,426	37.2	△132	△0.5
뇌진탕 및 타박상	7,716	11.2	8,901	12.5	1,185	15.4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326	7.7	6,670	9.4	1,344	25.2
신체내부 장기 손상	5,082	7.4	5,848	8.2	766	15.1
화상	2,479	3.6	2,001	2.8	△478	△19.3
전신 손상	583	0.8	433	0.6	△150	△25.7
기타 손상*	4,014	5.8	4,831	6.8	817	20.4
해당 없음	17,260	25.0	15,890	22.5	△1,370	△7.9
총계	69,018	100.0	71,000	100.0	1,982	2.9

* '체내 위험 이물질 유입', '구토', '설사', '알레르기', '어지러움·이명·메스꺼움', '두통', '오한·발열' 및 위해증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연령대별 현황

- 연령 확인이 가능한 65,503건을 분석한 결과, ‘만 10세 미만’이 23,279건 (3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9,699건(14.8%), ‘40대’ 8,096건 (12.4%), ‘60대 이상’ 7,249건(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안전사고 발생건수도 ‘만 10세 미만’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건, ‘20대’ 및 ‘40대’ 각 0.9건 등의 순임.

[연령대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인구* 천명당 발생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만 10세 미만	20,505	36.1	23,279	35.5	5.2
10대	3,618	6.4	4,099	6.3	0.8
20대	5,095	9.0	6,220	9.5	0.9
30대	7,765	13.7	9,699	14.8	1.3
40대	6,681	11.8	8,096	12.4	0.9
50대	5,936	10.4	6,861	10.5	0.8
60대 이상	7,183	12.6	7,249	11.0	0.6
총계	56,783	100.0	65,503	100.0	1.3

* 2017. 7. 1. 인구 기준(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연령대별 위해 다발 품목 현황

- 연령대별 위해 다발 품목은 ‘만 10세 미만’의 경우 ‘침대(2,194건)’가 1위를 차지함. ‘10대’는 ‘자전거(406건)’, ‘20대’는 ‘반려견(254건)’, ‘30대’와 ‘40대’는 ‘가정용 정수기(각 371건, 344건)’, ‘50대’ 및 ‘60대 이상’은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각 290건, 928건)’가 가장 많았음.

[연령대별 위해 다발 상위 3개 품목(소분류) 현황]

(단위 : 건, %)

순위	만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침대 2,194(9.4)	자전거 406(9.9)	반려견 254(4.1)	가정용 정수기 371(3.8)	가정용 정수기 344(4.2)	석재·타일 바닥재 290(4.2)	석재·타일 바닥재 928(12.8)
2	목재 마루재 1,007(4.3)	콘크리트 계단 126(3.1)	생선회 239(3.8)	생선회 331(3.4)	생선회 284(3.5)	생선회 284(4.1)	비닐 바닥재 545(7.5)
3	비닐 바닥재 846(3.6)	반려견 120(2.9)	자전거 145(2.3)	반려견 192(2.0)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229(2.8)	가정용 정수기 224(3.3)	콘크리트 계단 460(6.3)